



발행일 _ 2014년 5월

등록번호 _ 2289-0262

발행인 _ 신현윤

편집·진행 _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길 34, 5층

디자이너 _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_ 삼화인쇄

info.leet.or.kr

04 협의회 연혁

05 이사장 인사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06 로스쿨 오피니언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 사설

10 통계로 보는 2014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12 이달의 인터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

14 로스쿨 탐방

성균관대학교 박광민 원장

18 로스쿨 특파원

서강대학교 로스쿨 신입생의 24시간

20 파워 인터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용휘 변호사

24 리걸클리닉 스케치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28 로스쿨 핫이슈

(1) 법전원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법전문협의회 입장

(2)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제언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협의회 입장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성명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38 문화가 산책

40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42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관

since 2008

• Episodes 에피소드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7.27)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5개 대학 입학 및 특성화 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최종 확정·발표(2008.8.29)
-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학 및 법조인 양성 관련 기관·단체는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 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설립(2008.5.27)



• Chronicle 연대기

2008

- 01월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실시
- 02월 호문혁 설립준비위원장 선출
- 05월 제1차 창립 총회, 제1대 호문혁 이사장 취임
- 05월 법인설립허가
- 07월 제2대 김건식 이사장 취임
- 08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9

- 03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10

- 01월~07월 실무교류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정(결원보충)
- 06월 제3대 정중섭 이사장 취임
- 07월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발족



2011

- 07월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제1회)
- 12월 201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부 지원 예산 확보(리걸클리닉 지원)

2012

- 02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실 이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으로 이전)
- 05월 제4대 신현운 이사장 취임



2013

- 01월 ~ 12월 실무교류 협력에 관한 MOU체결(경찰청,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 0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04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 개최
- 08월 한·일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14

- 01월 변호사시험 시행권역 확대(충남대 추가)



법학적성시험 LEET 2008.05 _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 지정
2008.08 ~ 2013.08 _ 연 1회 법학적성시험 시행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신록의 5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활기찬 교정에서는 전국 6천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래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법전원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뜻을 모아 “로스쿨 창(窓)”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 설립 이래 6년 동안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과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풍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전원들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법전원은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신식 강의실과 도서관, 모의법정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아우르는 커리큘럼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변협 평가에서도 25개교 법전원 모두 우수한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검찰을 비롯해 국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 창(窓)” 발간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로스쿨 창(窓)”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올바른 소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미래의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법률가 양성의 산실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회 발전에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014.0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 현 윤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은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6년차에 접어든 2014년 4월 현재 큰 무리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의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한국 사회에서 로스쿨이라는 '낯선' 제도가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so far so good' 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성과를 내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해가면서, 거의 모든 학부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몰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던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었다.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이제는 사시 공부를 위해 고시학원으로 달려가는 대신, 로스쿨 진학을 꿈꾸며 강의실에서 전공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더 이상 법원 주변의 '법조타운'에 머물지 않고, 기업·국회·정부기관·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대학·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영세 상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변호사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다. 지역의 변호사 절대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로까지 변호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 모두가 법치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돈스쿨'이라는 선정적인 낙인을 동원한 비난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과연 로스쿨은 '고비용의 구조'인가? 3년 동안의 로스쿨 교육을 받기 위해 상당한 등록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연간 등록금은 국공립대 1,000만원 전후, 사립대 2,000만원 전후이며, 전체 평균



은 1,520만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평가는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내려야 한다.

우선 이 등록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전체 등록금의 43.7%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856만원이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1,20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등록금은 더 낮출 수 있다. 현재의 등록금은 법률가의 숫자를 통제하려는 법조의 '집착'으로 인해 지나치게 강화된 설치인가기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 그 기준을 낮추고 야간·통신 로스쿨을 도입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로스쿨 등록금을 올린 당사자인 법조인들이 '돈스쿨'이라는 비법률가적인 용어를 휘두르며 로스쿨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어거지 비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은 과제이다.

물론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시험에 의한 선발'을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도입 6년차에 로스쿨이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로스쿨 교육의 내용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충분히 새로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로스쿨의 학사와 행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졸업생에 대한 진로지도와 사후교육·재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로스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합당한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듯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챙겨야 할 사항들이 한둘이 아니다. 로스쿨의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들 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急務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즉 '자격시험화'이다. 1995년부터 1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제도 도입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 합의의 핵심은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 부여'였다. 즉,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출발점인 것이다. 자격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시험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응시자의 90% 이상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자격시험이다. 이러한 자격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만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회까지 실시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다. '총입 학생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기준은 기만이다. 총입학생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75%란 매년 바뀌는 총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1,500명이라는 고정된 숫자일 뿐이며, 그 숫자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험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의 '정원제 선발시험'일 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 2회 75%, 3회 6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초시 합격률도 87%, 81%, 7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같은 로스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게다가 2회 및 3회 시험의 초시 응시자들은 이른바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적용을 그 재학기간만큼 더 받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면, 논리적으로는 2회 및 3회 시험의 합격률, 최소한 그 초시 합격률은 87%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이 이러한 최소한의 논리조차 거스르고 있는 원인은 분명하다. 법조인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월권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의 결과는 결국 '로스쿨의 실패' 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0년대에는 합격률이 20%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대학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원제 선발시험'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합격률 수준이다. 4명 중 1명만 합격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육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에 매달릴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야말로 한국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과제인 것이다.

또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보다 더 무거운 시험이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형시험 및 전문적 법률과목 시험의 폐지와 해당 과목 이수에 의한 대체, 과목별 합격제의 도입, 기본 판례 100선의 간행, 시험문제의 문제은행화, 변호사시험 전담기관의 설립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실시하여, 변호사시험을 1,500등까지 줄 세우는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예비시험 도입과 사시 존치는 나아갈 길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편에서, 예비시험을 도입하자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결국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희망의 사다리를 건너차서는 안 된다'라는 선정적인 표어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주 혹은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예외적인 시험이다. 한국에서도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시험 등에서 그러한 예외적인 시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비시험이라면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도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주장되고 있는 예비시험은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취지로 일본에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에서는, '약자'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잘 통과하여 '시험기술'이 뛰어난 대학 재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또한 유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시험 도입은 나아갈 길이 아니다.

한 편 예비시험 도입 논의에 편승하여 사시 존치도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사시는 '고시낭인' 등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위원회가 사시 폐지를 결정한 것은 사시라는 낡은 제도로는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시와 사법연수를 폐지하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온 시대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혀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시 존치'는 결코 나아가서는 안 될 길이다.

로스쿨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은 로스쿨 제도 속에서 찾아야 하며, 로스쿨 제도 속에서 가장 잘 찾을 수 있다. 로스쿨에서는 입학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장



학금 비율 93.5%)。 또한 그간의 변호사시험 평균합격률은 77%이다. 이에 대해, 사시는 평균 합격률 3% 전후, 합격연령 30세 전후, 수험기간 5년 이상이다. 다시 말해, '매월 100만원 이상 드는 시험 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하여 30세가 되어도 100명 중 3명밖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인 것이다. 게다가 사시를 준비한다고 국가나 변호사단체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로스쿨이 이미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스쿨의 확산을 생각할 때이다. 지역 밀착형 야간로스쿨의 설립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공익변호를 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매우 유효하고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야간로스쿨의 설립은 전일제 수업의 부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직장을 병행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도 있을 할 것이다.

로스쿨의 확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야간로스쿨까지 포함하여 로스쿨의 설치인가기준을 합리화·다양화하여, 법률가양성교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형식의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보다 많은 경쟁 속에서 로스쿨 시스템 전체가 발전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로스쿨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라는 제목 아래, '국가,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변호사는 공익도 담당하는 전문직인 만큼, 그 양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특히 사시와 사법연수의 전면 폐지로 확보되는 예산 포함하여, 로스쿨에 대해,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시험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회를 즉각 단행하여야 한다. '1,500명 정월제 선발시험'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변호사시험의 형식과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로스쿨 지원도 요망된다. 그간에도 판사와 검사의 로스쿨 출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판검사 파견제도의 도입과 최신 실무를 반영한 교재의 개발 등을 통해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는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사시 존치라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그 대신에 로스쿨을 도와주어야 한다. 로스쿨은 다름 아닌 '변호사 양성기관'이다. 따라서 변호사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로스쿨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뫼니뫼니 해도 로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에게 로스쿨의 성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로스쿨 교수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의 '술선수범'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통계로 보는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입학정원 + 결원 보충 인원) 총 2,072명의 현황을 보면,

○ 특별전형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132명(6.37%) 선발하였다. **전체 합격인원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27명 감소, 2013학년도 2,099명) **특별전형 합격인원은 증가하였다**.(4명 증가, 2013학년도 128명)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일정성적 이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지원자 수가 미달되기도 하였다.

○ 자교출신은 518명(25.00%), 타교출신은 1,554명(75.00%) 선발하였다.

○ 법학사는 1,024명(49.42%), 비법학사는 1,048명(50.58%) 선발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법학사 비율이 감소되었다.(5.94% 감소, 2013학년도 5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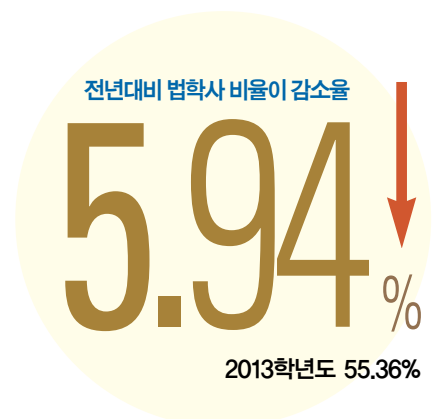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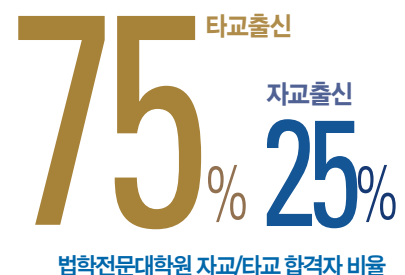
○ 비법학사의 출신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310명(14.96%), 사회계열이 280명(13.51%), 인문계열 191명(9.22%), 공학계열 107명(5.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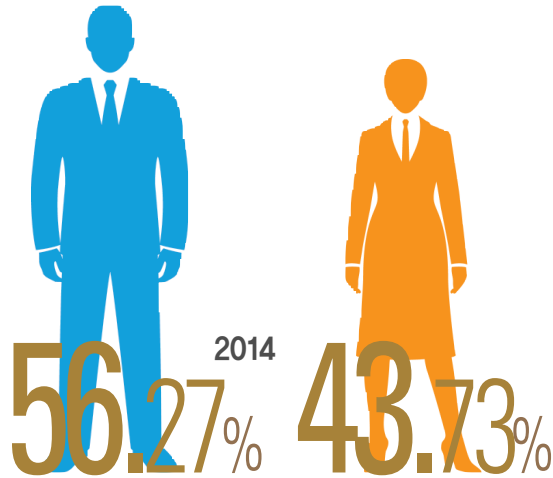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 1,166명(56.27%), 여성 906명(43.73%)이다.

○ 연령에서는 26~28세가 656명(31.66%)으로 가장 많았고, 23~25세 654명(31.56%), 29~31세 307명(14.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1세 이상도 4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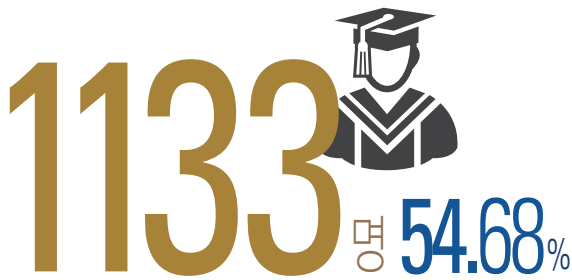
○ 최종 학력별에서는 대학교 졸업자가 1,133명(54.68%)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예정자(2014년 2월) 804명(38.80%),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상도 135명(6.52%)으로 나타났다.

○ 파악된 직업군을 보면 의료인(의사, 약사 등) 18명, 공무원 21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사 27명, 변리사 13명, 세무사 10명의 전문자격 소지자도 파악되었다.(직업 및 전문자격 소지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성별 현황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자인 합격자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1.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현황

구 분	자교/타교 합격자 현황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특별전형
	자 교	타 교	법 학	비법학	
인 원	518명	1,554명	1,024명	1,048명	132명
비 율	25.00%	75.00%	49.42%	50.58%	6.37%

2. 연령별 현황

〈나이산출 : 2013-출생년도+1 또는 2014-출생년도〉

구 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2	21	33	1.60
23세 ~ 25세	224	430	654	31.56
26세 ~ 28세	406	250	656	31.66
29세 ~ 31세	191	116	307	14.82
32세 ~ 34세	153	53	206	9.94
35세 ~ 40세	142	30	172	8.30
41세 이상	38	6	44	2.12
계	1,166	906	2,072	100

3. 출신 계열별 현황

구 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 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 학 계 열	592	373	965	34	25	59	626	398	1,024	49.42
상 경 계 열	166	132	298	9	3	12	175	135	310	14.96
사 회 계 열	114	140	254	9	17	26	123	157	280	13.51
인 문 계 열	75	99	174	9	8	17	84	107	191	9.22
공 학 계 열	76	24	100	7	0	7	83	24	107	5.16
자 연 계 열	23	23	46	1	2	3	24	25	49	2.36
사 범 계 열	16	17	33	1	0	1	17	17	34	1.64
의 학 계 열	6	7	13	1	1	2	7	8	15	0.72
예 체 능 계 열	5	8	13	1	0	1	6	8	14	0.68
약 학 계 열	3	8	11	0	0	0	3	8	11	0.53
농 학 계 열	2	1	3	2	0	2	4	1	5	0.24
신 학 계 열	3	0	3	1	0	1	4	0	4	0.19
기 타	9	18	27	1	0	1	10	18	28	1.37
계	1,090	850	1,940	76	56	132	1,166	906	2,072	100

“로스쿨을 통해 전문화·다양화·특성화 된 21세기형 법률가 양성 가능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 인터뷰

로스쿨 시행 6년, 국민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뛰어난 법조인 양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는 과정 속에서, 현재 로스쿨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 로스쿨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로스쿨을 설립할 때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인적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기준 이상을 갖추면 정부에서 설립을 허가해주는 ‘준칙주의’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로스쿨은 일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가가 이를 선별해 설치인가 하는 ‘인가주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설치인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과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로스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총 정원을 통제하면서 출발했다. 이는 학교의 재정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 법전문원에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3년의 충실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률, 특별전형 제도 등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갖추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득권 법조인들이 법전문 도입배경이나 제도운영은 무시한 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다시 정원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역량 차이가 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7~8년 동안 법률 공부를 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은 보통 3~5년 정도 법률 공부를 한다. 사법고시 출신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처음에는 법률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

으로 봤을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된다. 사법시험 고시생과 달리 로스쿨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이수했기 때문에 비교적 창의성도 뛰어나고 시야도 넓은 편이다. 다원화 되고, 글로벌화 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진 법조인이 더 적합하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야 하고, 로스쿨을 통해 21세기형 법률가 양성이 가능하다.”

등록금 논란에 대해서.

“로스쿨 등록금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 이는 그만큼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로스쿨 운영을 위해 수백억 원대의 시설투자를 했고, 법학부 시절보다 교수진도 몇 배나 늘렸다. 장학금 등의 혜택도 많이 줘야 하니, 학교 측의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의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대표 발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시험 존치론은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흔들며 기존의 병폐를 반복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옛말에 불과하다.



요즘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도 부유층 출신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더 이상 사법시험이 신분상승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은 적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수험생활을 지속하고도 평균 합격률이 3%에 불과하다. 반면에 로스쿨은 특별전형과 장학금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층 이동과 기회 균등에 더 이바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는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로스쿨을 비판하고 흠집 내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6년 법률시장 개방과 통일에 대비해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주장은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지난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됐다. 결과에 대한 입장은.

“지난 달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발표는 제3회 합격자 결정 시에는 증가하는 응시자 수를 반영하여 75/100 이상을 정하겠다는 제2회 변호사시험 발표·결정(13.04)을 전면 무시한 것이다. 응시자 대비 67.6%라는 졸속 결정으로 불합격자 742명의 번시 낭인이 발생하게 한 것은,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학생들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정원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로스쿨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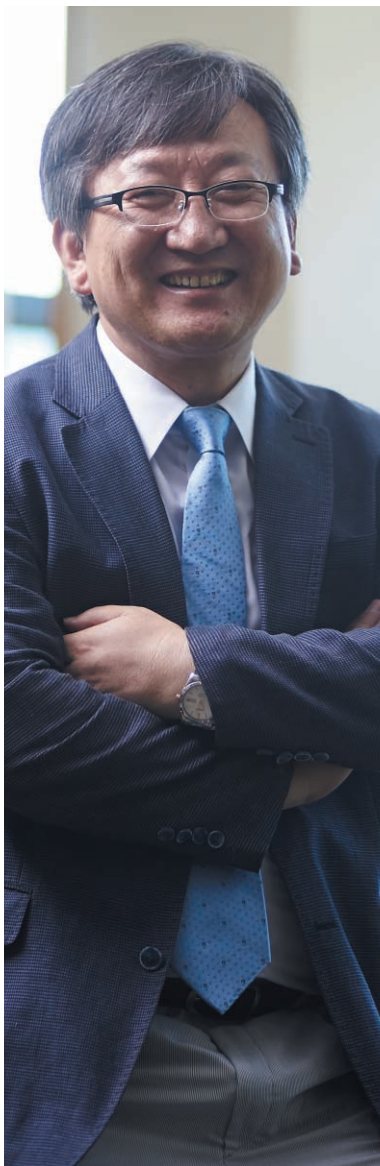
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조인을 반수 이상 구성한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배출 인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리위원회 제도개선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걱정이 많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한 기존 법조인들의 ‘사법시험 존치 논리’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주장, 당장에는 내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문제다. 우선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은 기존의 폐단을 재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층에게 이용될 가능성과 사교육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금보다 더 안정화돼야 한다.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또 다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시험과 같아지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성균관대 법전원은 “법전원 설립이념과 취지에 가장 잘 맞아”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명품 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박광민 원장 인터뷰

인터뷰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원장실에 도착했다. 그 시각, 박광민 원장은 한 학생과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뻑뻑한 일정 속에서도 학생과의 상담은 빼놓지 않는다고 말하는 박광민 원장의 미소는 따뜻했다.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을 자평한다면.

자평이라고 말하기엔 거창하다. 그렇지만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을 다른 법전원과 비교했을 때, 설립 이래로 가장 열심히 법전원의 이상을 좇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 법전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법전원은 그런 이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또 그 이념에 맞춰 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원장으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을 타고 학생들과 차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학을 공부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의 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의 인재상이 인의예지(仁義禮智)·실사구시(實事求是)·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상을 가슴에 담아 둔 사람이다. 개인, 조직,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이러한 전통 가치가 몸과 마음에 밴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인재상이고, 성균관대학교의 교육목표인 플러스+형 법률전문가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학생이 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리더를 많이 배출할 것이다.



세계 속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과 교류협약을 맺어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명문대학 하계 법학과정, 해외 인턴십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우수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5년여 만에 16명의 학생이 공동학위를 취득했고, 우리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세계의 내로라하는 대학만 30개에 이른다. 단언컨대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은 최고의 국제화를 이루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현황

- 1기 취업률 100%
- 2013년 검사 임용 점유율 13.5% 전국 2위
- 로스쿨 인가심사 교원부문 1위
- 전액 장학생 기준 수혜비율 40%
- 로클릭 임용 2년 연속 전국 1위
- 로스쿨 최초 재학 중 뉴욕주 변호사 합격자 배출
- 누적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97명(1기~2기)
- 로스쿨 최초 세계 우수대학과 공동학위과정 시행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특성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달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은 '기업법무'를 특성화로 하고 있다. 세계 속의 법전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거쳐 채택한 것이다. 과거에는 분쟁이 일어난 후에야 기업 차원에서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분쟁 소지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는 더 이익이다. 그러려면 기업에서 많은 법조인들을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법무를 특성화로 선정했다.

요즘도 강의를 하고 있나.

그렇다. 이번 학기에는 총 5학점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를 계속 해야만 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소통하기도 쉽다.

강의를 하면서 법대출신 학생과 비법대출신 학생의 역량 차이를 느끼나.

법대출신 학생과 비법대출신 학생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1학년 때에는 법대출신 학생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 그런데 2, 3학년이 되면 전세는 역전된다. 수석도 그렇고 졸업 시 상위권도 비법대출신의 비율이 높다. 우리학교는 애초에 비법대출신 학생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법대 출신 학생이 더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편견이 없다. 비법대생들은 아무래도 법대생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공부한다. 비법대생들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취업 시장에서도 같은 성적이려면 꾸준히 성적이 향상된 비법대 출신 학생들이 더 선호된다.

학생들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하고 있나.

성대 법전원 1기의 취업률은 100%였다. 로클럭 임용자수도 2년 연속 전국 1위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전원은 재단인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우리 법전원만의 삼성 실무수습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삼성 사내 변호사를 최다 배출하는 성과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원하는 영역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취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모색 중이다. 법조동문 DB 구축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이상적인 법조인의 모습은.

생각해보면 법전원의 설립취지와 이상적인 법조인의 모습은 많이 닮아있다. 과거의 법조인이 권위적이고 한 분야만 아는 사람이라면, 현대사회의 법조인은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은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법조인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 아니다.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부터 자





신의 본성과 자질을 살려 더욱 공부해야 한다. 이상적인 법조인은 권위 의식을 뛰어넘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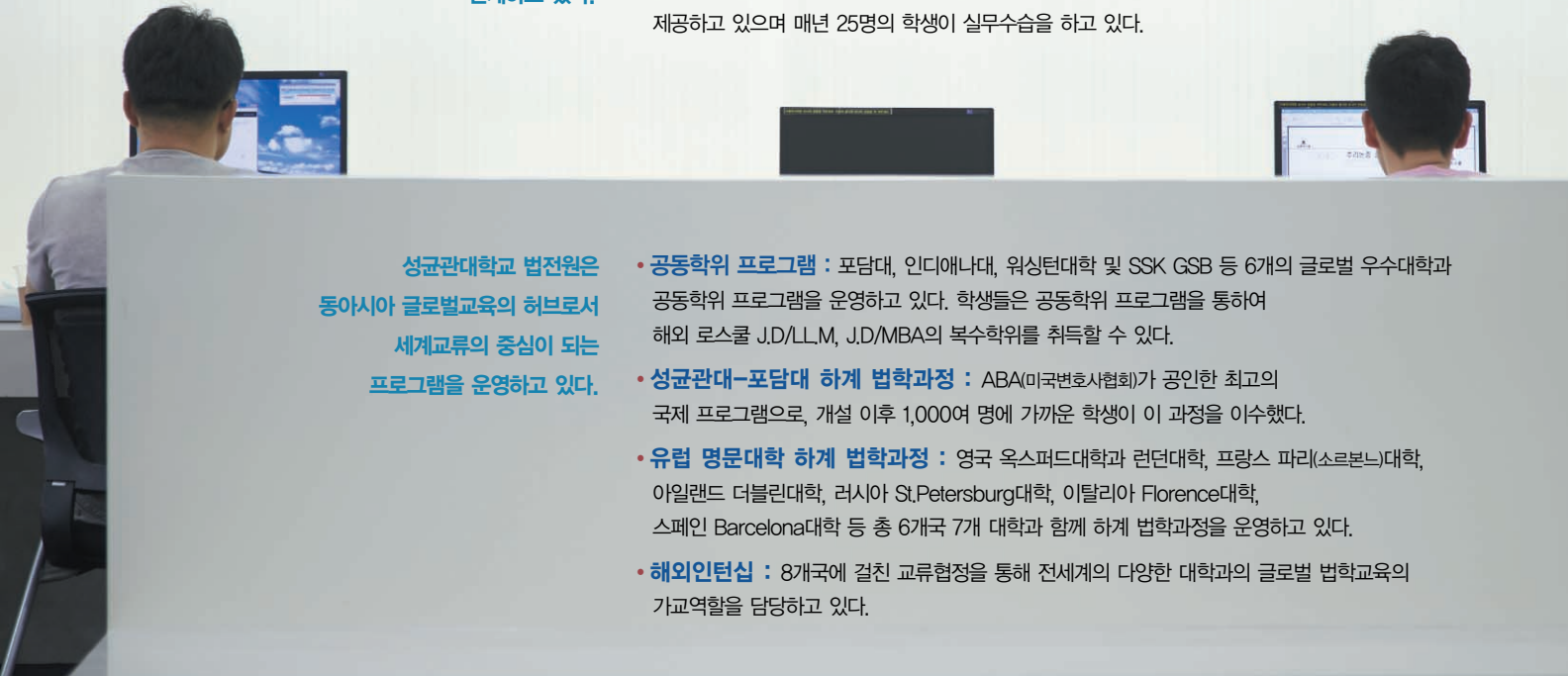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비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해달라.

법전원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법조시장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 법조인들은 변화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을 변호사 시험에만 올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만, 법전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시장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박소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육 및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은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주요기업, NGO 등 다양한 단체와 실무수습을 연계하고 있다.

- **국내실무수습** : 전통적인 법조 영역인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로펌 등은 물론 삼성 그룹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및 민변을 비롯한 NGO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해외실무수습** : 삼성그룹 해외 현지법인, 해외 우수 로펌(Stephoe&Johnson) 및 기업(Troutman Sanders LLP)에서 해외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삼성 하계 실무수습** : 삼성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학생들만을 위한 하계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5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은 동아시아 글로벌교육의 허브로서 세계교류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공동학위 프로그램** : 포담대, 인디애나대, 워싱턴대학 및 SSK GSB 등 6개의 글로벌 우수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로스쿨 J.D/LL.M, J.D/MBA의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성균관대-포담대 하계 법학과정** : ABA(미국변호사협회)가 공인한 최고의 국제 프로그램으로, 개설 이후 1,000여 명에 가까운 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 **유럽 명문대학 하계 법학과정** :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런던대학, 프랑스 파리(소르본느)대학,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러시아 St.Petersburg대학, 이탈리아 Florence대학, 스페인 Barcelona대학 등 총 6개국 7개 대학과 함께 하계 법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인턴십** : 8개국에 걸친 교류협정을 통해 전세계의 다양한 대학과의 글로벌 법학교육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도 처음엔 완전 ‘멘붕’이었어요. 근데, 하면 돼요!”

서강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김희진 학생 인터뷰(로스쿨 6기)

김희진씨는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로스쿨에 갓 입학한 새내기 대학원생이다.

학부 때부터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았던 김씨는 UN대표부에서 인턴을 하며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다 보니 국제기구에서 뜻을 펼쳐보고 싶었고, 국제기구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꿈이 생겼다. 학부 졸업 후 IT 회사와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꿈을 접지 못하고 로스쿨의 진학을 결심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심리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상담만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침 UN대표부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던 터라, 국제기구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많이 있고,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겠구나 싶어서 생각한 게 법이에요.”



새내기 예비 법조인의 눈코 뜰새 없는 24시

김씨는 올해 3월 서강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법 관련 지식도 전무한 상태여서, 남들보다 두 배로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학점 따는 게 학부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동기가 40명인데 법대출신이 절반, 비법대출신이 절반 정도 돼요. 근데 비법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중전공으로 법을 공부하고 온 학생이 많아서, 저처럼 ‘뺨비법’은 손에 꼽혀요. 그들과 경쟁해서 좋은 학점을 따야 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죠.”

김씨는 현재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 개의 강의를 들으면 약 4시간 정도의 소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 집보다 익숙한 곳은 강의실과 도서관이다.

“학점관리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2학년 때 로펌으로 실무실습을 나가는데, 학점도 좋고 로펌에서 일도 잘하면 제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다들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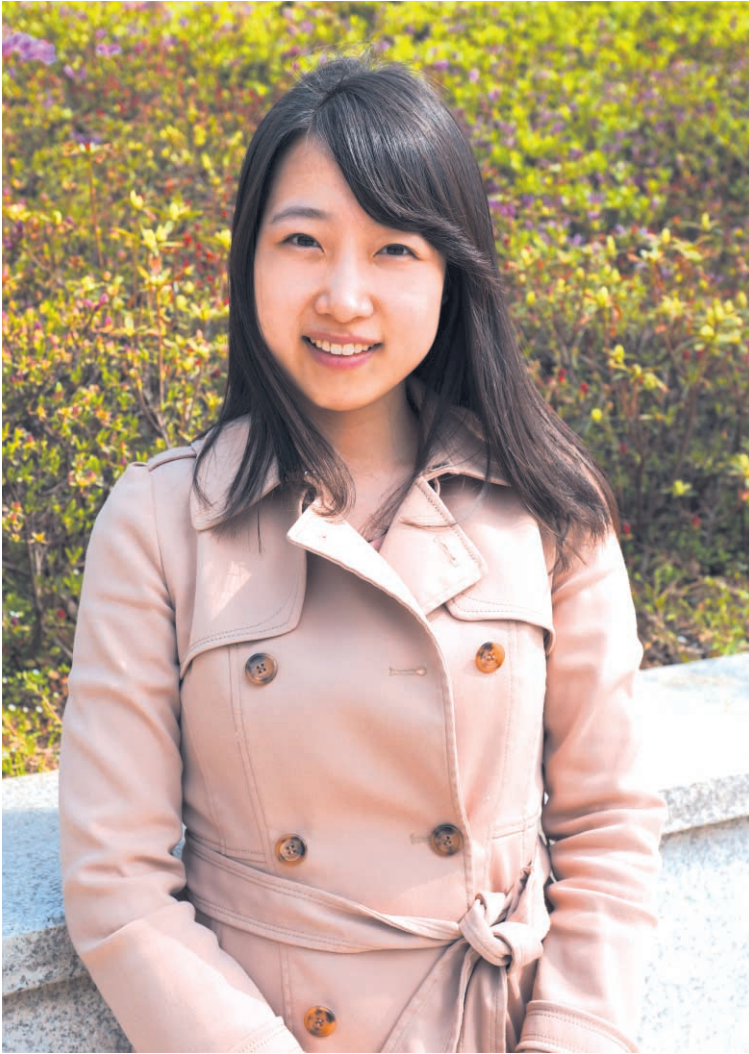
공부에도 열심히지만 김씨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운동’이다. 매일 아침 1시간은 수영을 하면서 체력을 기른다. 체력이 좋은 남자 동기들과 경쟁하기 위한 그녀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녀만의 방법이기도 하다.

김씨는 학회 활동에도 열성적이다. 지적재산권 학회와 국제거래법 학회에 가입해서 활동 중이다. 수업과 시험 준비만 해도 빠듯한 일정이지만, 학회를 통해 얻는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진다.

“사실 학회는 생각보다 많이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다들 공부하기가 바빠서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활동이 덜 하다가, 방학 때 활성화 돼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보장만 된다면, 학회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특성화 과목도 듣고 싶어요. 시험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게 최종목표예요”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지만, 한국인 종사자의 수는 많지 않다. UN만 하더라도 한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에 비해 한국인 직원은 매우 적다. 국제기구에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김씨와 같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깨는 무겁다.

“사실 공부가 바빠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어요.(웃음) 로펌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공공기관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은데 아마 먼 미래에는 국제기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세계 시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최종목표예요.”

마지막으로 로스쿨 입학 준비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김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완전 ‘멘붕’이었어요. 근데 하면 돼요!” 글 _ 박소희

서강대학교 로스쿨 새내기 김희진이 말하는 ‘로스쿨 합격 노하우’

시간 내에 푸는 연습과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솔직히 리트 준비를 많이 못 했다. 회사를 다니느라 다른 친구들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갔다. 1시간만 집중해서 기출문제를 5문제씩만 매일 풀었다.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니, 평소에 잘 틀리는 유형이 나오더라. 점심시간이나 회식 가기 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오답노트를 봤다. 퇴근 한 후에도 1-2시간씩은 공부했다. 리트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다.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풀었더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향상되더라.



논술과 면접은 스터디가 큰 도움이 돼

논술은 학원에서 참석해주는 강의를 들었다. 5회 분량의 강의였는데, 참석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 논술은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파악해 논리적으로 적어 내려가면 큰 부담이 없다. 큰 틀을 파악하도록 노력했다.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했다.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 스터디가 아닐까 싶다.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참석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뽑아주고 싶게 쓴 글이 있다. 솔직하되 진부하지 않은 이야기를 쓴 글에 눈이 갔고, 그런 점들을 응용해서 작성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면접도 마찬가지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와중에 많이 배우게 된다.

“변호사는 귀족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좋은 자격증을 가진 평민일 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법무팀장 김용휘 변호사(아주대학교 로스쿨 출신)

올해 9월 인천에서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45개국에서 2만 3천명 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 운영요원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경기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선한 미소로 방문을 환영해주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법무팀장 김용휘 변호사를 만나봤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캐나다 UBC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캐나다에서 지낼 때 북미의 로스쿨 제도를 알게 됐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한국의 고시제도와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도 신기했고, 이전의 이력과 전공을 살려서 자기 분야로 돌아가는 순환적 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했다. 북미 로스쿨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2009년에 한국에도 로스쿨이 생겨서 진학하게 됐다.

북미 로스쿨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

북미의 로스쿨에는 캐리어센터(Career Center)가 있다. 입학 학생의 전공과 이력을 보고, 1학년 때부터 앞으로 나아갈 적합한 분야를 상담해준다. 센터에서는 향후 비전있는 법률 분야와 직역에 대한 조사도 한다. 3년 내내 변호사 시험공부만 하는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들과는 다르게,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본인이 나갈 전문 분야에 대해 학교와 함께 찾아보고 준비한다.

아주대학교 로스쿨 출신인데, 특별히 그곳을 지원한 이유가 있나?

당시 아주대학교에서는 이전 경력이나 자격증을 지닌 사람에게 가산점을 줬다.(웃음)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중소기업법무’가 특성화 돼 있고, 로스쿨

제도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다. 덧붙여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요소도 로스쿨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정 산업이 융성한 도시에 있는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로스쿨 지원 당시 경기도/인천이 지역적으로 가장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주대학교 로스쿨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로스쿨을 졸업할 때, 진로결정은 어떻게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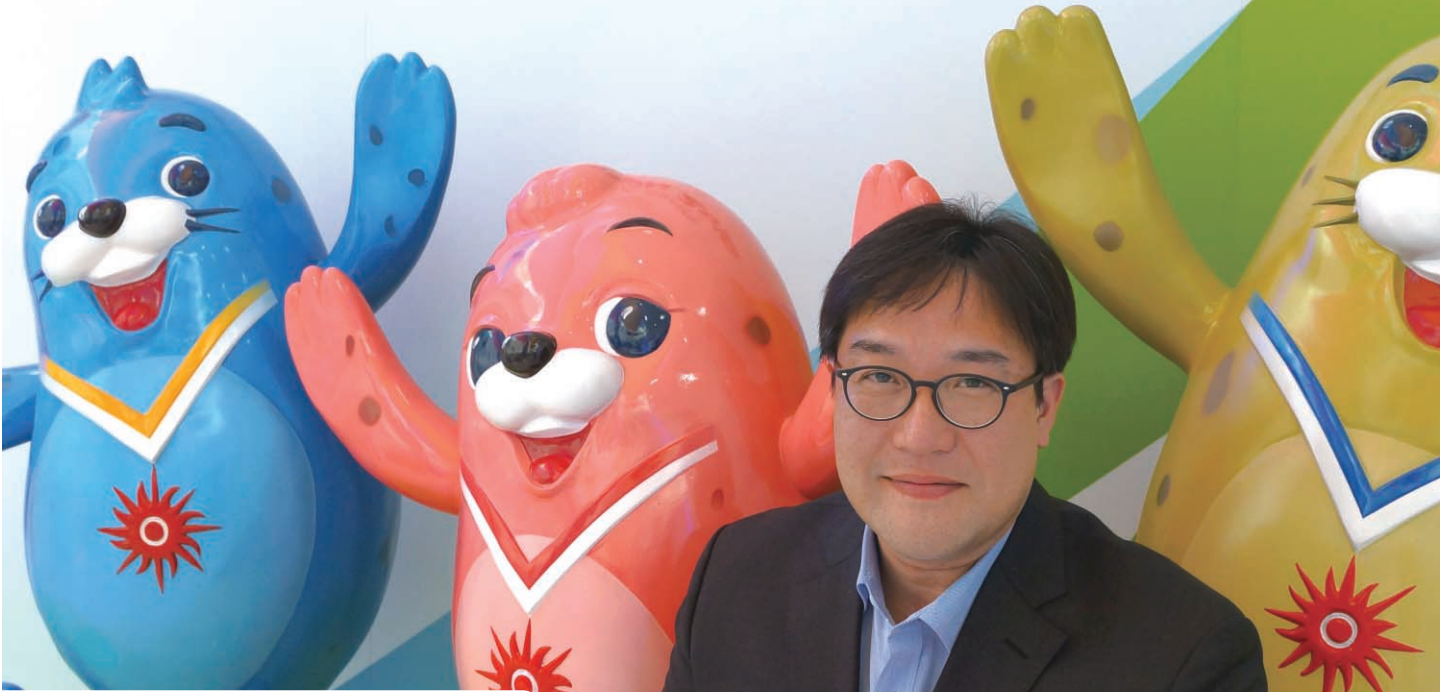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석사를 마친 후, 한국에 와서 국제회의 기획사로 활동했다. 각종 국제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인데, 세계철도대회 추진기획단 등 국제행사 주관기관에서 약 4-5년 정도 일했다. 일을 하면서 보니 대한민국의 마이스(MICE) 산업 분야가 유망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게 분명한데, 실제 법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다들 말은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지만, 국제 행사나 전시회를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스포츠 분야만 하더라도, 지난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오판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했다.

로스쿨 재학 시절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 때 원장님을 졸라 북경 현지 로펌에 인턴을 나가기도 했다. 입학 전부터 관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심있는 분야였고, 중국의 법률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클테니,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지금이야 각 로스쿨에 다양한 인턴제도나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서 여기저기로 나갈 수 있지만, 1기 때에는 시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 인턴을 통해 실질적인 스킬과 노하우를 배우다가 보다는,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졸업 후 진로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해달라.

88올림픽, 엑스포와 같은 각종 국제행사는 근거하는 법령이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근거 법령에 의해 세워진 재단 법인이다. 법무팀장으로서 조직위원회의 제반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 특성상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데, 이들이 국가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또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수익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후원사(기업체)와 법적관계를 설정하고 부당한 의무 사항은 없는지, 정당하게 요청해야 할 권리는 없는지도 파악한다.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해준다. 사내변호사로서 각종 법률교육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관리) 또한 나의 업무이다.

즐거워 보인다. 일이 적성에 맞는가?

굉장히 재미있고 많이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연구해보면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들처럼 소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사실 처음에는 법무팀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법률관리를 위해 사업팀장으로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운영할 때 법률적인 업무들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법률팀을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법무팀이 신설된 후, '법무업무 규정'도 만들어 법무업무를 체계화 시켰다. 처음에는 법무팀을 통해 의무적으로 법률검토 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법무팀을 거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지 많이들 찾아온다. 요즘엔 인기부서 중 하나다.(웃음)

본인의 직업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법무 업무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부서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한다. 다 같은 직원인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업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보람을 느낀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9월에 시작해 10월에 막을 내린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중국관련 업무를 했는데, 당시에 중국지사로 가서 일하고 싶었다. 중국 법률 시장도 전과 다르게 많이 세분화 되고 있다. 투자 유치, M&A, 저작권, 노동법 등등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다. 올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중국 법률 관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있을 것 같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밝은 전망인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

처음에는 법무팀을 통해 의무적으로 법률검토 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법무팀을 거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지 많이들 찾아온다.



중국어는 좀 하나?

대학 시절 1년간 교환학생으로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는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려면 언어가 충분히 돼야 하니까, 준
 비하면서 노력 중이다. 아침마다 EBS도 빠지지
 않고 듣고 싶다.(웃음)

로스쿨 졸업생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3기 변호사 합격자가 발표됐다는 뉴스를
 봤다. 그런데 이진 좀 아닌 것 같다. 로스쿨 취지
 자체가 고시처럼 한정된 숫자로 변호사를 뽑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몇
 만 명씩 뽑자는 것도 아니고...로스쿨 취지에는
 자격시험화가 맞다고 본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3
 년간 공부해서 기본적인 변호사 능력을 갖추면,
 시장에 나가서 알아서 경쟁을 하는 게 맞다. 시장
 에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본인의 문
 제인 것이다. 아직까지 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건
 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야들이 더 좁아
 지는 것 같다. '국제화' 나 '전문화' 같은 맥락이
 다. 맨날 말로는 학생들을 국제 진출시켜야 한다.
 세계 속에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시험공부에 매달려 경쟁하느라 국제무대에서 원

하는 인재상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로스쿨 3년 기간 동안, 학생들의 재
 능, 전공에 맞추어 학생들의 진로를 파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로스
 쿨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화니 전문화니 하는
 것은 공허한 미사여구가 될 것이다.

세계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딱히 해줄 이야기가 없다. 나도 공부를 잘한
 건 아니라서.(웃음) 합격한 이후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로스쿨 시
 대의 변호사들은 귀족이 아니다. 과거의 변호사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일종의 귀족 같은 것이었다. 오죽하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더 이상 변호사는 '용' 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좋은 자격증을 가진
 '평민' 이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평민 변호사로서 시장과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시장의 흐름과 사회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어느 분야에 가든 환영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로스쿨 졸업생이 세상으로 나온지 3년이 됐다. 여기저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찼해질 때도 있다. 아
 직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다양화되고 전
 문화될 것이고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 잠재력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다.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천아시아게임 많이 보러오세요! 글 _ 박소희

“CLEC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져”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이하 CLEC)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발과 함께 시작해 문을 연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국내 법전문 리걸클리닉 중 가장 활발하고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를 찾아가, 리걸클리닉의 현재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봤다.

- ✦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법률상담소장) _가운데
- ◆ 엄선희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_오른쪽
- 박성준 부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_왼쪽

식으로 진행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교육 및 봉사 목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국내 거주 외국인, 새터민, 장애인, 임금채불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 엄선희: 리걸클리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단순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은 법률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필드에서의 활동도 배우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CLEC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정영환: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임상법무실습’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인 ‘개별클리닉’ 활동이다.

CLEC는 어떤 취지로 설립됐나?

✦ 정영환: ‘실무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한국 상황에 맞춰 전문화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고려대학교에 CLEC를 도입하기 전에 미국의 스탠퍼드와 같은 여러 명문대학교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걸 클리닉의 형태를 우리에게 잘 맞도록 변형해서 도입했다. 법률상담 등의 실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 박성준: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LEC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많은 사건들을 받아 무료 상담형

◆ **엄선희:** 클리닉은 지도 교수와 전문성 있는 변호사, 전문위원들, 그리고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최근 7개의 클리닉이 신설 돼 현재는 총 14개의 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한 클리닉 당 4-5명의 지도변호사가 참여해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CLEC의 장점은 무엇인가?

✦ **정영환:**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리걸클리닉을 통해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진정한 법률가로서의 공익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심을 수 있다. 둘째는 실무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LEC를 통해서 학생들은 법률의 기본을 배울 수 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소장 작성하기 등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도 습득할 수 있다. 셋째는 전문성을 키워서 본인의 전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 클리닉, 국제인권 클리닉 등 본인이 미래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의 클리닉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엄선희:** CLEC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CLEC에서 만난 변호사, 전문위원들과 교류를 했고, 조언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 **박성준:**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CLEC를 통해서 대부분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미국 특허법인 등으로 인턴 실습을 가서 실무를 조금 더 익힐 수도 있고, 다양한 국제 파트에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CLEC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정영환:** CLEC를 이끄는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조성'이 없으면 CLEC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시간 부여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엄선희:** 그렇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CLEC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CLEC 활동에 대하여 학기당 1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매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클리닉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참여가 없다면 CLEC는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CLEC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 **엄선희:**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실무 교육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내 경우에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실무에 계신 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CLEC 활동을 하면서 로펌, NGO, 국가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을 뵈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 또 각박한 로스쿨 생활 속에서 동기, 선배들과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참 좋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다.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매우 빡빡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CLEC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시간을 CLEC를 위해 쓰고 있는 회장단, 팀장단의 경우 그 부담감이 더 크다.

■ **박성준**: 소장님과 부소장님을 포함한 교수님들을 자주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과 넓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즐겁다. 반면 시험기간 직전에 운영 관련 일이 떨어지면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힘이 든다.

기존클리닉과 신규로 만들어진 클리닉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정영환**: 기존에 있는 클리닉은 일반법률상담클리닉, 공익인권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 인터넷법클리닉,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 사회적기업클리닉, 조정클리닉으로 총 7개다. 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실무교육을 위해서 7개의 클리닉을 추가로 신설했고, 지금은 1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법률상담클리닉'에서는 매년 100여건에 이르는 민사, 형사 및 기타 법률 케이스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송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정클리닉'에서 현재까지 처리된 총 조정 사건 수는 41건에 이를 정도로, 각 클리닉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박성준**: 신설되는 클리닉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특허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식 재산권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 상표,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셨다. 이분들을 통해 최근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클리닉 활동이 있나?

◆ **엄선희**: 작년에 내가 소속돼있는 '공익인권클리닉'에서 공익변호사모임 "위안"과 함께 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 소송지원 활동을 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는 2013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 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후속 조치가 미비했고, 유족들의 형사상·민사상 법률지원이 필요해서 도움을 드리게 된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소송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었고, 유가족 분들을 직접 뵈고 이야기를 나누며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 **박성준**: '사회적기업클리닉'에서 사회적 기업법 전반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던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회적 기업법과 관련 법령에 대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소송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었고, 유가족 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한 책이 시중에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작한 작업이다. 새롭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어떤 클리닉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나?

◆ **엄선희:** 개별클리닉의 인기는 학기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 법률상담클리닉의 경우 법학사인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신입생 중 법학사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72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대형클리닉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신입생의 법학사 비율이 줄어서 그런지 활동인원이 크게 줄었다. 아, 조정클리닉은 작년 2학기에 신설 됐는데, 실제 조정기록을 검토하고 조정 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 올해 신설된 클리닉 중에서는 국선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며 형사사건을 검토하는 형사클리닉이 인기가 많다.

■ **박성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활동과 연관이 있는 클리닉이 인기가 많다. CLEC의 대표업무로 자리 잡은 '일반법률 상담클리닉'이나, 법원에서 직접 일을 받아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조정 클리닉' 등에 많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클리닉의 규모는 그들이 진행하는 고유 활동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에 규모만으로 내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CLEC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 **정영환:** 왜 없겠나.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리걸 클리닉의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미래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키워줘야 하고,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 **엄선희:** 가장 큰 어려움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의 적용으로 학생들이 CLEC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2학년인 5기의 경우 CLEC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쉬워하며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6기도 학업 부담으로 CLEC 활동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행정이 강화된 만큼 리걸클리닉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졸업학점 부여 등)도 강화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 **박성준:** 많은 학생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졸업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항상 아쉽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이 20학점에 달하는 많은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CLEC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

✦ **정영환:** 학생들이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 '따뜻한 법률'을 가슴에 담았으면 한다. 변호사 시험의 압박감과 학업의 양이 많아 힘들겠지만, CLEC를 통해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익혔으면 좋겠다. CLEC 역시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하버드대, 예일대와 같이 우수한 해외대학교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박소희



법전원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법전문협회의 입장

〈'14.03.28 긴급총회 회의자료〉

1. 법전문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3월 법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원)이 출범한 이래로 여전히 세간에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을 주장하며 법전문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법전문원을 비판하고 흠집 내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법전문원은 '돈스쿨'이라고 불릴 만큼, 3년간 학비가 많이 든다.
- 법전문원의 입시전형은 공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 사법고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출세의 사다리'이다.
- 법전문원은 '현대판 음서제'이다.
- 다양한 전공자를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전문원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법학사 출신보다 법학사 출신이 많다.

■ 위와 같은 주장은 새로 도입된 법전문원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풍문을 가지고 법전문원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법전문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전문원 제도의 목적인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폐단 극복을 막는 행위이며, 기존의 폐단을 반복하지는 주장과 같음.

○ 또한, 법률시장 개방 및 통일에 대비하여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음.

■ 이에, 법전문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전문협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임.

2. 법전문원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법전문협회의 입장

**첫째, 법전문원은 돈스쿨이 아닌 세계 제일의
법조인 배출기관이다.**

■ 법전문원은 전체 등록금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법전문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56.3%(856만원/원)만 부담하고 있음.

연 도	2009	2010	2011	연평균	25개교 장학금 총 지급액
비 율	47.0%	42.9%	41.3%	43.7%	398억원

○ 법전문원 등록금은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비싼편이 아니며, 오히려 장학금 지급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단위:만원)

구 분	평균등록금 (연간)	장학금		실질등록금 (연간)
		금 액	지급비율	
법전문대학원	1,520	664	43.7%	856
의학전문대학원	1,611	406	25.2%	1,205
치의학전문대학원	1,442	205	14.2%	1,237
경영대학원	1,979	324	16.4%	1,655

■ 뿐만 아니라, 법전문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입학정원 대비 6%)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졸업까지 93.5%가 장학금을 받고 있음.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음.

특별전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입학인원	125명	119명	123명	134명	128명	132명

※ 특별전형 재학생 장학금 지급현황 : 5,973,600천원 매년 지원

■ 법전원 설치 인가 기준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임.

※ 법전원 설치 인가 기준

- 교 원 : 1인당 학생수 15인 이하(現, 7.2명) 실무경력 5년이상 교원 1/50이상
- 시 설 : 교원 연구실,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 학생정원 : 학교별 40~150명 소규모 운영 (※25개교 법전원 법과대학 폐지)

■ 위와 같이, 법전원 설치 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

소규모 정원(40~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법전원 총 운영수입(2,783억) 대비 등록금(951억) 의존율은 34.2%로 매우 낮음

○ 일본의 경우 '준칙주의'로 도입되었음에도 경상비보조, 학생장학금,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5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정부지원이 전무함.

둘째,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법조 관계기관들은 사법시험 준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주장하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막연히 법전원의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법전원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 법전원은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 입학전형은 '가', '나' 군으로 나누어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1단계(정량지표)			2단계(정원의 300~600%)		
LEET성적	대학성적	어학성적	1단계 성적	논술	면접

■ 특히,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 채점은 블라인드 채점(크로스 채점)으로 진행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서 진행함.

셋째, 법전원은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법고시야 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사다리' 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사법시험은 평균 합격률이 3%에 불과하며, 합격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됨. 또한 사법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인재대국의 사회적 손실이 큼.

■ 법전원은 다르다. 법전원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균 81%에 육박함.

사법시험 합격률	연 도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평균 3.8%	2009	23,430	997	4.26%
	2010	23,244	814	3.50%
	2011	19,536	707	3.62%
VS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 도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평균 81.2%	2012	1,665	1,451	87.14%
	2013	2,046	1,538	75.17%

※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출신 합격자는 "0"명임.

넷째, 법전원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 전문 법조인 배출기관이다.

■ 법전원을 비판하는 세력은 법전원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며, 정치계, 경제계 고위층 자녀들이 법전원을 통해 판사, 검사가 되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법전원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판사, 검사의 채용과는 무관함. 검사와 판사의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

○ 검사 임용은 학업성취도 능력과 법전원의 검찰실무 I, II 성적을 비롯해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법전원 성적을 토대로 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음.

다섯째, 법전원은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하고 있다. (비법학사보다 법학사 출신이 많다는 오해)

■ 법전원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음.

사법시험 비법학 18.95% VS	구 분	법 학	비법학
	인 원	248명	58명
	비 율	81.05%	18.95%
※ 제55회 사법시험 기준			
법전원 비법학 50.58%	구 분	법 학	비법학
	인 원	1,024명	1,048명
	비 율	49.42%	50.58%
※ 2014학년도 합격자 기준			

※ 법전원 비법학 합격자 현황(12~14학년도)
 • (2012학년도) 45.94%, (2013학년도) 44.64%, (2014학년도) 50.58%

○ 비법학사의 출신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310명(14.96%), 사회계열이 280명(13.51%), 인문계열 191명(9.22%), 공학계열 107명(5.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입학하였음.

○ 초기부터 일정기간까지 법학사 출신의 입학자가 증가했지만,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될 계획으로 법학사 출신의 입학도 점점 줄어들 것임.

3. 법학전문대학원 안착을 위한 제안

첫째, 법전원 특성화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

■ 법전원은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보다 시험과목이 많고 출제범위가 넓은 변호사시험에만 집중함. 특성화 과목까지 이수할 여력이 없어 폐강이 속출하고 특성화 교육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변호사시험 과목 축소 및 개선을 통해 학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함.

○ 또한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맞는 각각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고비용 구조와 비현실적인 인가기준, 대한변협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재정손실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고 학교에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 엄격한 설치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전원의 법률에도 명시된 사항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2항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가 기존 사법연수원에 매년 지원한 재정 500억원을 향후

사법연수원 폐지시 법전원에 지원한다면, 학생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임.

셋째, 법전원 실무교육의 확대 및 지역확대를 통한 진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법전원 학생들이 실무를 익혀 현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리걸 클리닉'의 활성화, 인턴십 기관의 확대, 현직 법조인의 실무 교원 활용, 교내 로펌 설립 등을 추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법전원 출신 우수 법조 인력이 다양한 직업에 진출하여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출 영역을 확대해야 함.

○ 진출 직업이 확대된다면 법치사회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정부, 국회 및 관련 단체의 상호협력 필요함.

넷째, 세계시장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법조인'으로 양성해야 한다.

■ 법률시장 개방 계획에 따라 2017년이면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됨.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전원 인력의 확대가 요구됨.

○ 법조인 양성을 확대 해, 법전원 학생들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외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내 법전원과 국외 로스쿨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국내의 법전원 학생들이 넓은 시각을 갖고 세계시장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인원은 480명(59개 기구)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태임.

○ UN(United Nations)의 직원 수는 31,583명이며, 산하/전문기구의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83,319명임. 이 중 한국인 직원 수는 전체 직원의 1.51%에 불과한 480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이며, 진출 가능한 기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진출이 전무한 기구도 많은 실정임.

○ 한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정규직원은 12명이며, 전체 정규직원 약 2,600여 명 중 한국인 직원은 약 0.46% 수준임. 한국 측 정규 분담률이 세계 11위인 2.173%를 고려하면, 인원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섯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법조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 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예측가능한 법조인력 양성을 준비해야 함.

○ 독일 통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서독의 정년퇴직한 전직 법관까지 동원됐을 정도로 법조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남한과 북한의 통일시대가 도래할 경우, 남한과 북한 간의 사법 통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법조인력 충원이 필요함.

○ 특히 구동독과 다르게 북한은 법치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법조인을 재임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이에 통일을 대비해 많은 법조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제언

2014년 4월 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에 불과한 1,550명으로 발표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 하는 법전원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의 입장을 밝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14.03.28 긴급총회 회의자료〉

1.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취지

■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함.

※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건의문(2004년)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 그 동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합격자 결정

구분	응시자	합격자	불합격자	합격기준점수 (1,660 만점)	비고
제1회 (12.03.22발표)	1,665명 (100%)	1,451명 (87.15%)	214명 (12.85%)	720.46점	
제2회 (13.04.26발표)	2,046명 (100%)	1,538명 (75.17%)	508명 (24.83%)	762.03점	(초시 합격자/80.8%) 1,829명 중 1,477명 (재시 합격자/28.1%) 217명 중 61명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질 경우 문제점

법전원 학생 부담과 충격

면시 과목에만 학업집중,
학교수업 참여 저하

법전원 교육과정 파행

수험위주 교육,
특성화·선택과목 붕괴,
학사관리 강화 방안 유지 불투명

종래 사법시험 폐단 재현

시험만 열중, 사교육 열풍,
면시낭인 발생

법전원 설립취지 무색

설립취지 퇴색,
일본 로스쿨 실패 답습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에 어려움 초래

4. 양질의 변호사 배출을 위한 법전원의 노력

■ 법전원 학사관리 강화 방안 시행 (2011학년도부터)

○ 엄정한 상대평가 및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확보, 졸업생의 실력 수준 관리

-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 모든과목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학점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 비율 설정
- 재학년한 최대 5년이후 자동 제적

○ 유급현황(3기 법전원생 기준) : 총 185명(입학정원 대비 9.25%)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인원	60명	18명	107명(졸업탈락자 90명 포함)	185명
입학정원 대비	3%	0.9%	5.35%	9.25%

※ '14.03.01 기준, 법전원 학사관리 이행점검 현황 자료(교육부, 법전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질 경우 법전원의 엄정한 학사관리 불투명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을 통한 실력 향상 기여

○ '11년 연 1회 시행에서 '13년부터 연 3회 확대 실시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예정)	비고
시행횟수	1회 (7월)	2회 (8,10월)	3회 (6,8,10월)	3회 (6,8,10월)	매년 실시

※ 출제·시행경비 : 정부 예산 지원 없이 각 법전원에서 경비를 부담

○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 구성(약 100여명)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론, 실무)
- 외부기관 :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로펌 변호사 참여

○ 출제 가이드 라인 제시

- 기본적인 내용 및 중요 판례 위주 출제, 난이도(상,중,하) 고려
- 선택형 1문항당 평균 1분 45초(560자), 읽고 생각 풀수 있는 지문 출제

○ 모의시험 시행 후 평가·활용

- 기출문제 중에서 모범 출제문항 선정 제시, 문항 정답률 공개
- 모의시험(3회분) 기본과목 해설집 발간을 통한 체계적 학습기회 제공

○ 법전원 졸업시험과 연계, 학사관리 강화에 기여

- 졸업 탈락생은 매년 증가('11학년도 28명, '12학년도 40명, '13학년도 90명)

5.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제안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측 가능한 적정수준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합격률 결정에 대한 고려사항

- 법전원의 엄정한 학사관리로 185여명 유급, 수료(졸업탈락자)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확대로 계속적으로 질 향상 기여
-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 추이 감안
- 타 자격시험과의 합격률 형평성 고려
(ex. '14년 국가시험 응시자대비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 통일대비, 다양한 직역 진출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필요
- 제3회 변호사시험이 1, 2회 시험보다 난이도(지나친 긴 지문)를 높여 선발인원을 낮추려는 의도에 대한 응시생들의 의혹 제기
 - 법전원 교육과정 연계 부재, 중요판례보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 출제, 실무가 출제위원 다수참여, 검토위원을 변시합격자를 제외하고 사시합격자가 참여 등

■ 적정 수준이상 합격률 보장시 기대효과

-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의 관심이 고조되어 우수 법조인력 공급 가능
- 법전원의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 가능(특성화과목, 선택과목)
- 법전원생의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충실
-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안을 건의드립니다.

<1안> 제1, 2회 변시합격률 평균 81.16%

<2안> 제2회 변시합격률 75.17%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호사시험이 1,500명 정원의 선발시험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결국 24.3%까지 추락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지향하는 로스쿨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은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합격률을 넘어서 변호사시험에 관한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정상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2014년 4월로 예정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시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구시대의 방식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양성’을 21세기 대한민국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원리로 확립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에 있어서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하며(제2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2. 하지만,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정원제 선발시험’의 구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총입학정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 기준은, 그 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상, 1,500명이라는 선발정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다시 말해 의대·치대·한의대 졸업자가 그러한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 변호사시험이 ‘법률가’의 자격에 관한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험이야말로 다른 어떤 시험보다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결과는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1) 전체 합격률은 제1회 87.2%인 데 대해 제2회 75.2%이며, 합격점은 제1회 720.5점인 데 대해 제2회 762.0점입니다.(표

1).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응시자 모두를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에서 1년만에 합격률은 10%나 하락하고 합격점은 42점이나 상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500명 정원'이라는 잘못된 결정기준 이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초시험합격률은 제1회 87.2%인 데 대해 제2회 80.8%이며, 초시 과락률은 제1회 11.6%인 데 대해 제2회 12.4%입니다([표1]). 그런데 제2회 응시자는 2011년부터 도입된 이른바 '학사관리 강화방안'으로 인해 '학사'의 부담을 더 많이 감수해야 했던 학생들입니다. 공부의 부담을 더 많이 졌던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 낮고 과락률은 더 높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500명 정원'이라는 잘못된 결정기준 이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3) 제1회 및 제2회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정원 1,500명'의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합격률은 24.3%까지 추락하게 됩니다([표2]). 이것은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신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합니다. 결국 '정원 1,500명'이라는 기준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구태에 사로잡혀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률기양성제도를 실패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뿐인 것입니다.

4.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은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격시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5% 전후입니다.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역시 그에 필적하는것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통한 양성'은 불가능합니다.

2) 제1회 변호사시험의 초시험합격률은 87.2%이고, 제2회는 80.8%입니다([표1]). 제3회 응시자 중 초시응시자는 제1,2회 응시자보다 더 긴 기간인 3년간 이른바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적용받은 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합격률이 제1회 및 제2회의 초시 합격률을 밑도는 상황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향후 초시험합격률은 80% 이상, 연간 합격자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표 3]).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예견가능성

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시험'이 아니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합격률을 넘어서 변호사시험에 관한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정상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그간의 변호사시험 실시과정을 통해, '합격자 결정방법' 이외에도, a. 시험 전반의 불규칙한 난이도, b. 선택형 시험의 과도한 비중, c. 전문적 법률과목 선택비율 및 과락률의 편차, d. 출제 및 채점 위원의 실수가 편중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변호사시험을 '교육과 연계된 합리적인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 변호사시험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과의 합리적인 토론과 검증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가나다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운영의 정상화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설립 취지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6천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변호사시험 운영의 정상화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스쿨은 법학전문교육을 통하여 윤리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파행적 운영과 법조계 일부 기득권층의 도를 넘은 ‘로스쿨 흔들기’ 공세 등 작금의 현실은 위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탄생한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여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수많은 수험생 중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로스쿨 제도는 이미 일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들을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3년간 법학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전히 기존 사법시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리 정해진 합격인원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인원이 매년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실질 합격률은 30%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락하는 합격률은 로스쿨을 입시 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아닌 암기와 시험에 특화된 인재들만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와 선발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이미 커버린 몸매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격입니다. 법조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더욱 커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기존의 좁은 송무시장을 벗어나 사회 각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선발시험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실력은 시험의 등수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고득점을 경쟁하는 선발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과정을 이수한 자가 법률가로서 필요한 일정 수준의 법학지식을 습득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자격 시험이어야 합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을 현행 선발시험의 방식이 아닌,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합격하는 자격시험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내는 모든 자원과 역량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쓸리지 않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투입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입니다.

둘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일부 법조 기득권 세력의 도를 넘은 ‘로스쿨 흔들기’ 공세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법조 기득권 세력의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비난이 그 도를 넘어 로스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마저 그들과 연계하여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스쿨이 가난한 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대판 음서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그러한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들은 진정 경제적 약자들과 국민들을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법조인으로서 누려왔던 한 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세력들은 사법시험과 같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법률가는 더 이상 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률가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법률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

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법률가는 용’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눈에는 ‘시험의 천재’가 아닌 평범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우스워보일지 몰라도 이미 로스쿨이 배출한 수많은 평범한 법률가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통로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에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이 평균 5년 간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현실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까? 왜 당신들은 4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 신화에는 그토록 열광하면서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수백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3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까?

대한변협과 서울지변을 장악한 일부 법조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발전,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위한다면 사법시험과 같은 허울뿐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인 로스쿨의 문호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특별전형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십시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은 로스쿨 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0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봄날의 미술관을 좋아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작년 11월 13일, 과거 군국기무 사령부가 사용하던 부지에 미술관이 세워졌다. 현대식 건축물과 전통 한옥 양식의 종친부, 리모델링한 근대적 분위기의 전시관 건물까지 담백하지만 독특한 느낌을 연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을 다녀왔다.

사진제공 _ 명이식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설계자로 선정된 민현준 엠펙아트 대표에 따르면 서울관은 “무형의 미술관”을 지향한다. 설계 당시부터 건축물을 지으려던 것이 아니라, ‘풍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까닭이다. 서울관 바로 건너편엔 경복궁이 있고, 부지 내부에는 문화재인 종친부가, 인근에는 북촌 한옥마을이 있어서 ‘조화’를 고려해야 했던 것. 때문에 국외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미술관을 기대했던 관객이라면 다소 심심한 외관에 실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민 교수의 말처럼 이 자리에 표정이 강한 ‘튀는 미술관’이 세워졌다면 경복궁, 한옥마을과 따로 놀았을 것이다. 서울관은 마치 전부터 여기에 있었던 듯, 그렇게 주변의 풍경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서울관은 주변의 경관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 지상 3층으로 저층화 돼있는 반면, 지하3층까지 깊게 파고들어가 지어졌다. 특히 ‘마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관람객은 마당을 통해 어떤 방향에서든 자유롭게 미술관을 드나들 수 있다. 서울관에는 총 6개의 마당이 있는데, 야외 미술품 전시장이나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계의 미술관들의 동선이 전시장 입구에서 시작해서 아트숍으로 빠져나오게 정해진 것과 달리, 서울관의 동선은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마치 섬처럼 흩어진 8개의 전시관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글 _ 박소희



국립현대미술관 초보자를 위한 팁

정해진 관람 동선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전시부터 관람하면서, 천천히 미술관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특히 서울관은 전시장 외부에서도 꼭 시간을 보내도록 동선을 짜야 한다. 8개의 전시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6개의 마당에 의외의 볼거리가 많다. '전시 마당'을 비롯해 '종친부 마당', '경복궁 마당' 등 6개의 마당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하면서,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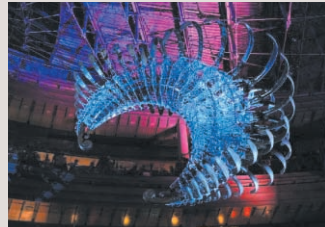
위치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지하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북촌길 방향,
또는 삼청로 민속박물관 방면

관람시간 : 화,목,금,일 10:00~18:00 /
수,토 10:00~21:00
(정기휴관: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람요금 : 단일 관람권 4,000원
(관람료의 경우 해당 전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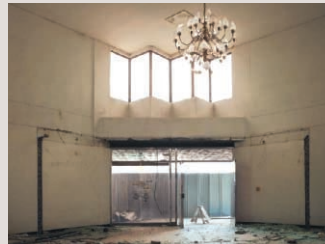


놓치면 안 되는 전시



2013.11 ~ 2014.11 현장제작작품설치 : 최우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장제작 작품 설치 프로젝트 작가로 놀라운 상상력의 기계 생명체 작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최우람(1970~)을 선정하였다. 최우람은 고고학적이며 과학적인 가상이론을 바탕으로 첨단 기계 과학 문명 시대의 거대 도시가 드리우는 깊고 비밀스러운 어둠 속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기계 생명체 작업으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2013.11 ~ 2014.7 미술관의 탄생 : 건립기록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역사적인 건립과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 주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아카이브로 구성하는 장기 건립기록 프로젝트를 담아낸 전시이다. 사진기록은 노순택, 백승우 작가가 참여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사 DK미디어가 영상기록을 담당했고, 작가 양아치는 음향기록을 담은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주관이 뚜렷한 작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기록'이자 '작품'들을 보여주는 <미술관의 탄생>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미술관의 변화과정을 독특하고 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4.4 ~ 2014.7 _쉬린 네사트

이란 출신의 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쉬린 네사트(1957~)의 회고전으로 작가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이 총 망라되는 대규모 전시이다.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사회라는 주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로 승화한 작가의 예술적 여정이 사진,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영화를 통해 소개된다.

2014년 주요사업계획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5학년도 LEET주관

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합숙 ● 이의신청 접수(8.17~20), 정답확정 발표(9.3), 채점(8~9월)
시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지구, 15개 시행기관 협조 요청 ● 공고(4월), 원서접수(6.30~7.10), 시행(8.17), 성적발표(9.23)

2015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 정착으로 큰 변동 없이 기본계획 수립·공지 ● 기본계획 수립(3월), 발표(5월), 입학전형 진행(10월~'15.2월)
공동 입학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실질적 입학정보 제공, 제도 홍보 등 ● LEET 성적발표 후 개최(9.26~27)

법전원 정보교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대표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운영현황 소개, 주요 현안사항 논의 등 ● 학교별 학술세미나 개최 등
실무수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기본·심화 과정, 국회사무처, 국세청, 경찰청 등 ● 사법연수원 하계 및 동계 연수 프로그램 지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숙출제 1회, 시험시행 3회 ● 제1차 : 6.23~27, 제2차 : 8.11~14, 제3차 : 10.27~31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전원 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우수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 협의회에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법전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법전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사항 개선을 위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 행사 개최·후원, 성명서 제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걸클리닉 8.75억원, 교육·취업 연계 연구 1억원 ●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NEWS

제3회 변호사시험 관련 총회 개최



지난 3월 28일과 4월 11일 서울 서소문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총회가 열렸다. 협의회 신현운 이사장을 비롯해 25개 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운 이사장 외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 후, 협의회에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회의



4월 4일 대전 유성 소재 인터시티호텔에서는 지방소재 법전원 원장 11명, 협의회 사무국장, 교육부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대책방안 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 법전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진행됐다.

● 제26차 이사회 (2014.04.04)

법전원협의회 신현운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모여 법전원 입학관리, 시험관리,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14년도 리걸클리닉 운영계획 검토 등 평가회의 (2014.04.16)

2014년 리걸클리닉 국고지원금 결정을 위한 항목평가를 위해 5명의 교수를 평가진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다.

● '1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T/F팀 2차 회의 (2014.04.2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14년도 제2차,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기본방향 설정 및 출제위원 최종 선정 등을 논의했다.

로스쿨 현안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4년 5월 21일(수) 14:00 ~ 17:00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 중구 소재)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 제 목 : 위기의 로스쿨 - 정전화 방안

로스쿨 창(窓)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에서는 '독자 코너'를 이끌어 갈 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학생·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showe@leet.or.kr)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25개 로스쿨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해 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 상 : 로스쿨 재학생 ● 기 간 : 1년
- 혜 택 : 수료증, 소정의 원고료, 우수 활동자 시상
- 접수기간 : 2014년 5월 30일(금)
- 접수방법 : email 접수(showe@leet.or.k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nfo.leet.or.kr) 공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시행 주관

- 총회 심의·의결
- 교육부에 기본계획 보고

- 시행계획 공고(14.02.11)
- 접수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 홍보물 배포 : 전국대학교, 학원, 공공기관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06.30~07.10, 11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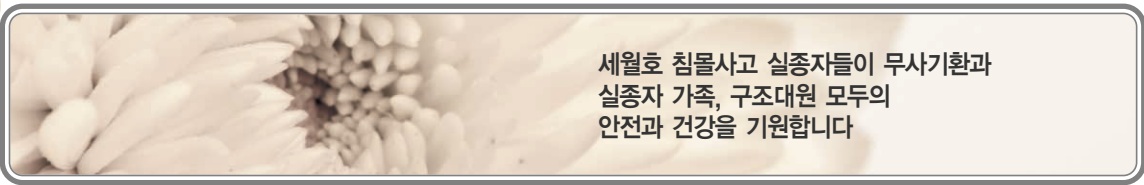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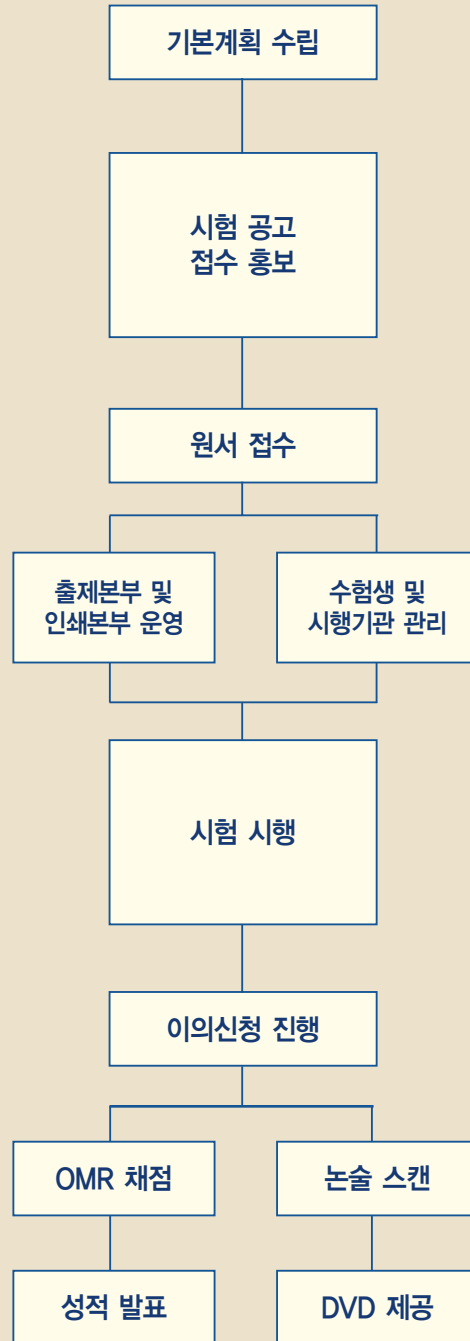
- 전국 9개 지구 15개 시행기관 관리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08.17)
- 문답지 인계 및 답안지 인수

-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접수, 심사 및 정답 확정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OMR 채점
- 논술답안지 이미지 스캔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성적 발표(09.23)
- 논술답안지 스캔 DVD 학교별 제공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이 무사기환과
실종자 가족, 구조대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